
AI 일상화를 위한

'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2024. 4. 4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 추진 배경	1
II . AI 일상화 본격 확산	3
III . 2024년 국내 상황 진단	5
IV . 2024년 AI일상화 중점 추진방향	8
V . 주요 추진 과제	9
1. 국민 일상 속 AI적용 확산	9
2. 산업 쏠분야 AI 융합 · 접목 촉진	12
3. 재난 대비 · 공공 행정의 AI 내재화	16
4. AI시대를 대비하는 국민역량, AI윤리 확보	18
VI . 2024년 AI일상화로 변화하는 국민의 삶	20

I. 추진배경

□ 지난해 초거대 AI와 AI 일상화를 위한 정책기반 마련

- 챗GPT 등장과 함께 초거대 생성형 AI 열풍 확산에 대응하여 AI 강국 도약을 위해 다양한 전략 마련
 - 국가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AI 일상화 및 산업고도화 계획('23.1)', '초거대AI경쟁력 강화방안('23.4)' 등 정책적 노력 지속
- 아울러, AI의 혁신적인 가치를 국민과 산업 일터현장에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전국민 AI일상화 실행계획('24~'26)' 마련*('23.9)
 - * '대한민국 초거대 AI도약' 행사('23.9, VIP 주재)'를 통해 정책방향 발표

□ AI시대, 국민이 체감하는 AI혜택을 본격 실현할 시점

-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혁신 AI기술이 모든 산업기기·서비스에 적용·활용되는 'ALL on AI' 시대 개막이 전망
 - ※ 2024 CES 주제 : '모든 분야(ALL)에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첨단기술의 확장(ON)'
- 자국의 산업 특성에 맞는 AI의 개발·도입의 성공 여부와 그 속도가 국가경제 성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관건
 - ※ 저출산·고령화환경, 노동 생산성 증대를 위해 AI전환 필요(맥킨지, 한국의 차세대 S커브)
 - ※ 생성형 AI 도입에 따라 향후 10년 간 전세계 GDP가 7% 증대 예상(골드만삭스, '23)
 - ※ '24년은 생성 AI가 얼마나 강력하고 유용한지 깨닫는 해(포브스, '24 상위 5가지 기술트렌드)

□ 범국가 역량 결집을 통한 초방위적인 AI일상화 실행 필요

- 범국가 차원의 역량 결집을 통해 건강관리·복지·돌봄·문화 등 국민 일상 전반에 AI를 활용한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기여
- 아울러 ICT산업 뿐 아니라 전통산업과 공공행정까지 AI융합 접목의 전향적 확산으로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이라는 진화 촉발

⇒ '24년은 전국민 AI일상화 실행계획('24~'26)을 추진하는 첫해로 AI를 국민생활, 산업현장, 정부행정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대책 조속히 추진

참고 '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 개요

□ AI 일상화 정책방향 마련

-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23.9)」을 통해 국민과 AI 혜택을 공유하고 세계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수립

비전	➡	전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대한민국으로 도약
전략	➡	AI를 일상·일터·공공에 접목, 체감 가능한 혁신 창조

-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초거대 AI도약』 행사를 통해 국민과 AI 일상화 시대 대응방향 공유·논의



“일상생활에서 전문 영역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불러올 초거대 AI의 발전방향, 도약방안 논의”(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3.9.13)

□ 민간 의견수렴 및 대국민 설문조사

- (제5차 AI최고위 전략대화, ‘24.1.19) 2024 CES(‘24.1.9~‘24.1.12)를 통한 AI전폭확산 확인, 초거대AI·로봇·TV·통신·뷰티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과 우리나라 2024년 AI정책방향 논의
- (총 7회의 AI 일상화 간담회) AI 일상화 관련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연속 현장간담회 개최(‘24.1~‘24.3월, 총 7회*)

리걸테크(‘24.1.31)	헬스케어(‘24.2.7)	학술 AI(‘24.2.15)	커머스(‘24.2.20)
AX(기업 AI전환, ‘24.3.5)	뷰티테크(‘24.2.2)	온디바이스AI(‘24.1.24)	

- (대국민 설문조사) 우리나라 국민·전문가들이 생각하는 AI 일상화 필요 분야 등에 대한 의견수렴 추진

※ (대상) 19~64세 일반 국민 1,000명 | (기간) ‘23.12.04~12.22 | (기관) 현대경제연구원

II. AI 일상화 본격 확산

- ◇ AI가 빠르게 현실 속에 스며들기 시작, 향후 우리의 삶의 일상과 미래의 변화를 좌우할 동반자가 될 전망

□ ICT·산업 경계를 넘어 전통산업·일상에서의 AI활용 본격화 시작

- '22~'23, 챗GPT가 촉발한 AI 기술발전과 분야별 확산은 '24년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AI를 쉽게 접하고 활용하는 'AI시대' 개막으로 연결
 - 계층·소득의 구분 없이 AI와 함께 일상을 영위하기 시작



(취약계층) AI콜, 어르신
안부확인·위험감지서비스



(소상공인) AI 기반 맞춤형
매장관리 서비스



(청년) AI 구직(자소서
첨삭, 면접 조언 등) 서비스

- 산업에서도 과거 ICT·하이테크의 전유물로 여겨온 AI가 이제 농업·제조·물류 등 전통 산업에서도 적용이 본격화

(농업) Agrist社, '로봇L'('23.12)	(제조)BMW社 '피겨1'('24.1)	(물류) Peki社, 'Pekybot'('24.1)
 토마토 자동 재배 로봇(평균 1분 1개 재배 가능)	 BMW美 공장 AI 로봇배치 예정 (키 167cm·몸무게 59kg)	 英 크렌필드 대학 내 배송 로봇 Pekybot 시범 운영

- '24 CES·MWC의 핵심 동향은 'AI for All', 초산업 글로벌 기업의 생존 전략과 혁신 제품은 'AX(AI Transformation)'의 신호

2024 MWC		2024 CES	
-------------	---	-------------	--

□ AI 기술·기기는 AI일상화를 더욱 촉발하는 방향으로 발전 지속

- 향후 초거대 생성형 AI는 광범위한 활용성을 토대로 AI 반도체 高性能化 추세와 결합해 비약적인 발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 "AI는 현 시대를 정의하는 기술, AI 반도체는 新 산업혁명의 엔진(엔비디아 CEO 젠슨 황)"
- 아울러 높은 운영 비용과 고전력 소모, 개인정보 유출 등 초거대 AI의 단점*을 보완하는 경량화AI·온디바이스 AI도 발전 병행

* 오픈AI 7,000억원 적자('22), GPT-4 화력발전소 2기 분량(7,200Mwh) 전력소모 등

- 이러한 범용기술의 발전과 쏘고기·서비스에 쉽게 적용되는 모델·반도체 진화는 AI일상화를 더욱 급진전시킬 것으로 전망

※ “앞으로의 AI는 개인 PC에서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개인 데이터 기반 AI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며, 모두의 일상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줄 것(AMD 리사 수 CEO)”

- 일상에서의 AI홈·비서·주치의 등의 서비스가 구현될 전망

< AI 기술·기기 발전으로 인한 AI일상화 촉진 >

초거대·생성형 AI 모델 고도화 진화 → 복합인지, 메타인지 자율 추론	+	AI 반도체 고성능화 혁신 → 낮은 전력, 소형화, 초거대 컴퓨팅 수행
온디바이스 AI	분화 → 저용량 AI 모델링 수행, 네트워크·서버 종속에 대한 한계 극복	



'AI일상화의 급진전' 촉발

헬스케어  < AI 주치의 >	자율주행차  < 자율주행단계 LV5 달성 >	일상의 비서  < AI 비서 >	주거생활  < AI 홈 >
---	---	---	---

□ 새로운 AI시대 도래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상존

- 향후 AI는 단순 일상의 편의 향상 및 업무의 보조 수단이 아닌 사람을 대체하는 새로운 주체로 발전 가능성까지 제시되는 상황

	“AI, 인류진보 모든영역에서 역할할 것” 겔 싱어(인텔 CEO, '24.3)		“AI는 모든 일자리에서 사람을 대체할 수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23.11)
---	--	---	--

- 美·中 등 주요국 역시 고도화된 AI를 그간의 산업혁신뿐 아니라, 의료·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 노력 본격화

 미국	(美 AI행정명령, '23.10) 의료혁신·청정 에너지·사회문제 해결에 AI를 활용한 혁신 추진을 위한 연방정부 제도 수립 등 포함	 중국	(中, AI+ 행동, '24.3) 산업, 농업 등 중국 내 핵심 산업 내 AI 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강화를 통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
---	---	---	---

- 한편,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확산 등 AI의 위험이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오며 AI윤리·신뢰성 확보가 지속 가능한 핵심기반으로 부상

※ “AI가 가진 이점만큼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 위험공존(’23.11, 美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 경제·사회 전반의 AI 활용 확산을 위해 성공적인 AI의 적용 정착을 위한 총력 전개 필요

III. 2024년 국내 상황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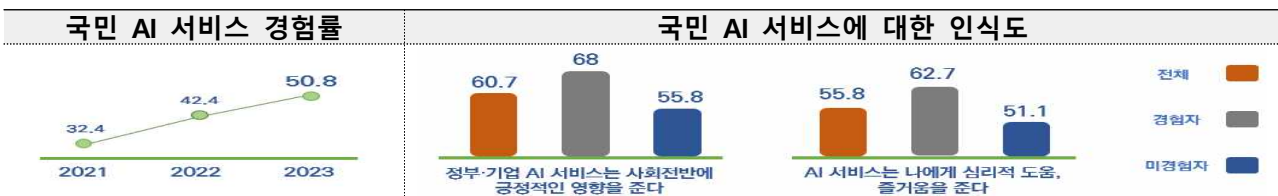
- ◆ '24년은 성공적인 AI 확산·안착 여부가 향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수준을 좌우하는 '골든 타임'
- '23년이 AI서비스 개발 경쟁의 해였다면, '24년은 그간 개발한 서비스의 본격 확산을 통한 성과창출 경쟁의 해
 - ※ '23년은 다양한 생성형AI들이 쏟아진 해 '24년은 AI가 비즈니스로 가치를 입증할 것(맥킨지 '24.3)
- ◆ 우리는 그간 AI의 혜택을 국민·산업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 지속
 - (정부) AI일상화 산업 고도화계획('23.1),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23.9) 등
 - (민간) 의료·통신·법률 등 다양한 분야 생성형 AI융합 서비스 출시 등 AI+X 바탕의 국민 체감 서비스 개발·확산 노력 활발
 - ※ (예: 통신) 음성인식 등 고객센터 전체 업무 최적화 시스템 AICC 뿐만 아니라 AI통화비서 등 소상공인 대상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24.1., KT)
- ◆ 일상과 산업현장, 그리고 정부행정 등에 AI 활용이 본격 확산되는 지금, 국민들이 AI 혜택을 피부로 느끼도록 정책적 노력·이행 필요

□ [일상생활] AI가 스며들기 시작, 국민체감 확산과 긍정적 인식제고는 과제

- 2024년 국내 일상생활에서의 AI활용은 건강관리, 구인 등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본격 확산 시작

모바일혈당관리(카카오헬스케어)	맞춤형일자리매칭(알바몬)	AI기반고객의견분석(LG유플러스)
 스마트폰과 혈당측정기 연동해 실시간 당노관리('24.2)	 2개월 만에 AI 활용 일자리 매칭 서비스 이용자 27만명 달성('24.2)	 월 2백만 건의 고객센터 상담 내용 분석해 대응('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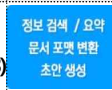
- 다만, 아직 우리나라 ①국민의 AI서비스 경험률은 절반수준(50.8%), ②AI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60%대 불과('2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NIA)



⇒ 일상속 AI가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 국민의 이용률·긍정 인식률은 아직 부족, 국민수요·체감 높은분야 AI서비스 개발·이용 집중지원 필요

□ [산업현장] 특성 · 준비수준에 맞춘 체계적 AI 도입 · 전환 지원 필요

- 산업현장에서도 효율성·생산성 증대에 AI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노동량 감소·비용절감 등에 본격 기여
 - 금융, 유통, 업무보조 등에서의 AI 도입·활용이 활발히 확산 중

금융(신한금융그룹 AI활용 DT)	유통(쿠팡, 상품분류 AI로봇)	업무보조(삼성SDS, 브리티코파일럿)
 인건비 등 비용 年4,380 억원 절감효과 달성('24.2)	 대구물류센터 '소팅 봇' 도입, 업무량 65% 절감('23.3)	 정보 검색 / 요약 문서 포맷 변환 초안 생성 업무보조 AI 적용, 직원 한 명당 월 49시간 단축 예상('24.2)

- 다만, 아직 국내 기업은 ①AI도입은 초기단계(28%, '23 기업ICT 활용도 조사, NIA)이며, ②영역별 기대효과·준비수준은 상이('24, 배인앤컴퍼니)

예시 분야	분석 결과	비고(사유등)
법률·미디어	높은 AI도입효과, 빠른 도입 예상	지식노동·창작 빠른 보조 가능 분야
제조	높은 AI도입효과, 점진적 도입 예상	인프라 전환비용 등이 필요한 분야
농업	다소 낮은 AI도입효과, 점진적 도입 예상	기술수준 고려시, 인적노동이 아직 효율적

⇒ 산업 부문별 특성을 고려한 AI전환 지원으로 성공적 확산 촉진 필요

□ [정부행정] 공공행정 · 재난대비 쏠분야 AI 내재化 본격 추진 필요

- 민원 대응부터 재난 안전, 인파 관리 등 정부 행정 효율화·고도화, 국민의 안전보장 강화 정책 등 공공분야 AI 도입 활성화 시작

민원(서울시, 120다산콜센터 AI도입)	화재안전(의정부시, AI+IoT 화재대응)	인파관리(대전, AI CCTV 활용)
 불법주정차 신고 등 민원 AI 해결 도입 발표('23.4)	 노후주택 많은 지점 AI·IoT 화재감시서비스 구축('23.7)	 AI 활용 CCTV로 인구 밀집축제 안전 관리('23.7)

- 현재 국내 공공AI도입률은 절반수준(55%)이나, 향후 추가 도입이 활발히 이뤄질 전망, 다만 아직 단순 업무보조(챗봇 등) 등에 치중

구분	주요 내용
공공AI도입률	도입·활용 중 (55.0%), 도입 예정 (18.8%)
공공서비스 AI활용분야	챗봇 등 기타공공(1위, 20.3%), 보건의료(2위, 8.5%), 일반행정 (3위, 6.4%), 에너지/환경(4위, 5.4%), 기상·재난안전(5위, 4.4%), 치안방법(3.4%)
활용효과	업무효율성 향상(91.2%), 서비스 경쟁력강화유지(58%), 사업 개발·개선(48.1%)

※ 공공부문 AI활용 실태조사('23.2,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408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설문)

⇒ 공공행정 쏠분야에 광범위한 AI적용·확산에 주력할 필요

참고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일상속 AI의 인식

□ 우리나라 국민은 AI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경험도 증가 추세

- 우리나라 국민의 AI서비스 경험률은 50.8%(‘23)로 최근 3년간 지속 증가추세, 많이 경험한 분야는 주거·편의, 교통, 교육 순

* (‘21년) 32.4% → (‘22년) 42.4% → (‘23년) 50.8%

- AI활용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느낀 분야는 주거·편의, 교통, 검색 순

구분	주거편의	교통	교육·학습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AI대화형검색	금융	헬스케어
경험률	20.8%	16.6%	14.6%	12.9%	10.7%	8.6%	5.6%	5.1%
도움정도*	95.3%	94.4%	91.2%	84.4%	90.2%	92.6%	80.8%	87.8%

* 해당 분야 AI서비스 활용이 매우 도움되거나/도움이 되었다고 느낀 응답비중(%)

- AI 서비스가 사회·개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절반 이상 국민이 좋게 평가하며 서비스 경험자가 미경험자보다 긍정적 인식이 높음

질문내용	긍정 답변율(%)		
	전체	경험자	미경험자
AI기반 서비스는 사회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60.7	68.0	55.8
AI서비스는 나에게 심리적 도움·즐거움을 준다	55.8	62.7	51.1
AI서비스는 모두에게 공정하고 차별없는 서비스이다	52.6	59.6	47.9

※ 2023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NIA) / 조사대상 25,000가구(60,000명) [기간] '23.8~10

□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AI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 국민들은 의료·보건 등 사회복지 분야와 함께 공공(안전, 편의) 분야에서의 AI 일상화를 중요하게 생각
- 전문가들도 유사하게 사회복지 분야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특히,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AI를 중점 분야로 생각

※ (조사대상) AI·도메인 전문가 28명 19~64세 일반국민 1,000명 | (기간) '23.11~12 | (기관) 현대경제연구원

IV. 2024년 AI 일상화 중점 추진방향

비전

국가 전반의 AI 활용도 제고와 국민체감 확산

목표



- '24년 총 7,102억원, 69개 과제 추진 -

주요 추진 과제

1 국민 생활 (755 억원, 18개 과제)

- **(건강·질병)** AI서비스 확산으로 국민의 건강 향상 기여
- **(사회·복지)** 장애인·어르신 일상생활 보조 및 사각지대 없는 복지 기여
- **(보육·교육)** 맞춤형 돌봄·교육 제공 지원으로 부모의 걱정 완화
- **(문화·주거)** AI콘텐츠 전국민 이용 지원, AI홈서비스 제공 등

2 산업 현장 (2,881 억원, 24개 과제)

- **(법률·미디어 등 민간 전문영역)** 전문가 업무보조 및 국민 접근성 향상
- **(바이오·제약·의료)** 신약·항체개발 첨단화 및 지역 의료AI 확산 기여
- **(소비·유통물류)** 소상공인 영업지원·노동감소 및 스마트 물류관리 촉진
- **(제조·공정)** 공정효율 향상·비용절감 기여, AI發 新서비스 창출 기여
- **(농·축·수산)** 무인화·자동화·안전화로 전통적 재배환경의 진화 촉발

3 정부 행정 (1,157 억원, 14개 과제)

- **(재난·안전)** 화재·홍수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의 위기대응 능력 향상
- **(공공 행정)** 대국민 서비스의 질은 향상, 행정 업무의 양은 감소

4 기반 인프라 (2,309 억원, 13개 과제)

- **(리터러시·인재)** 국민 일상의 AI접근 향상, 현장형·실무형 인재 양성
- **(격차 해소)** 지역·계층 등 소외 없는 맞춤형 AI교육 제공
- **(신뢰·안전)** 민간자율 AI 신뢰·안전성 확보 지원과 생성형 AI發 위험 대응

V. 주요 추진 과제

1. 국민 일상 속 AI적용 확산

□ (건강·질병) AI서비스 확산으로 국민의 건강 향상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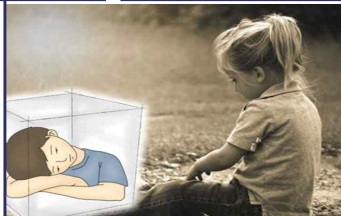
- **(소아질환)** 총 9종의 소아희귀질환 임상정보·인간전장유전체 데이터 구축 및 진단·치료·예후관리 AI SW 개발(과기정통부, 28억원)
- **(중증질환)** 총 12개 중증질환의 진단 보조 AI 의료 SW 24개 개발 및 임상검증, 상용화 및 해외진출 지원(과기정통부, 79억원)

분야	지원내용
 (소아질환)	① 희귀유전대사질환 ② 선천성 다발기형 ③ 뇌신경질환 ④ 유전성심장질환 ⑤ 유전성신장질환 ⑥ 염증성장질환 ⑦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⑧ 소아혈액종양질환 ⑨ 유전성근병증질환
 (중증질환)	① 위암 ② 우울증 ③ 피부질환 ④ 당뇨병 ⑤ 폐암 ⑥ 폐렴 ⑦ 전립선증식증 ⑧ 간암 ⑨ 뇌경색 ⑩ 간질환 ⑪ 고혈압 ⑫ 갑상선암

- **(자폐치료)** 자폐성 장애 치료·관리를 위한 AI 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의료기기 개발 지원(실증·시범서비스 등, 과기정통부, 80억원)
- **(조기예측)** 자폐스펙트럼 조기예측 및 장애아동 사회성·의사소통·이상행동 개선을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3개) 개발(과기정통부, 30억원)
- **(선별·진단)** 자폐스펙트럼 장애 고위험군 선별·진단보조·경과예측 AI 알고리즘 고도화 및 소프트웨어(3종) 공인 인증(복지부, 38억원)

예 시

AI기반 자폐 초기진단 효과 관련



- ❖ AI 기반 자기공명 영상 분석 시스템(美 루이빌대, '23.7)
 - 98.5%의 진단 정확도를 가진 유아(24~48개월) DT-MRI 뇌 영상 AI 기술을 통해 자폐 조기 진단 및 의료인력 지원
- ※ 자폐 치료 프로그램 적용 적기인 만 2세 경에 진단가능하며, AI 기술로 진단 후 심리학자 결과 확인 시 업무량 30% 감소

- **(건강일반)** 개인 라이프로그·진료기록 등 데이터 활용, AI기술 기반 맞춤형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실증사업 추진(과기정통부, 40억원)

* 혈압·혈당·운동량·칼로리 등 활용 재활·만성질환·신경퇴행성 분야 디지털치료기기 확대

□ (사회·복지) 장애인·어르신 일상생활 보조 및 사각지대 없는 복지 기여

- **(장애인)** 장애 유형별(시각, 청각·언어 등) 점자정보단말기·특수 키보드 등 정보통신보조기기 5,300대 보급(과기정통부, 40억원),
 - 장애인 재활운동 주력 11개* 종목에 대한 통합 훈련관리 솔루션, AI 운동코칭 기기 실증 및 제공 지원(과기정통부, 10억원)
- * 골볼, 배드민턴, 보치아, 사격, 수영, 유도, 육상, 태권도, 펜싱, 탁구, 양궁

예 시 AI기반 시각보조 서비스 사례



- ❖ AI가 이미지를 인식하고 음성으로 묘사하는 '설리번 A'
 -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을 통한 스마트폰 내 문서 제어, 문자인식, 단어검색, 영수증 요약 기능 제공
- ※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비율은 90.4%(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로 일반 문서 인식형의 보조기기 수요 높음

-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해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개조·제작 및 연구개발 지원(고용부, 23억원)

* (예) 시각 장애인 → 텍스트 음성 변환(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 지원

- **(어르신)**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가건강관리 능력 및 건강수준 향상(복지부, 137억원)
 - AI·IoT 기술 및 건강측정기기를 활용, 건강취약계층 대상 6개월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제공 보건소 확대*

최초 방문 시	서비스 제공	성과평가
■ 혈압·혈당·노시·약력 등 측정 ■ 앱 설치 및 이용법 교육, 장비 (디바이스) 배부	■ 개인건강정보, 미션실천 상시 모니터링 ■ 컨설팅 제공 등 건강관리	■ 6개월 후 건강 지표 및 만족도 조사

* 보건소 확대 : ('23) 141개소 → ('24) 178개소

- **(복지위기가구)** 위기정보 분석 및 복지 사각지대 가구 예측·선별·지원,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운영(복지부, 16억원)

※ 연 6회(격월) 고위험군 약 20만명 발굴(중양 약 15만 명, 지자체 약 5만 명)

* AI 초기상담 시범운영('24.1월~) 및 데이터 학습을 통한 시스템 개선·본운영('24.하~)

□ (보육·교육) 맞춤형 돌보미·교육 제공 지원으로 부모의 걱정 완화

- **(돌봄 지원)** AI를 활용한 수요-공급간 맞춤형 돌보미 추천·매칭 등을 수행하는 **AI 자동매칭 시스템 개발·고도화**(여가부, 32억원)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신속화 및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 등 신규서비스 적용 확대

- **(AI디지털 교과서)** 교사의 수업설계와 학생 맞춤 학습을 지원하는 AI 디지털 교과서개발 및 단계적 도입(과기정통부·교육부, 53억원)

- 10개 AI디지털교과서 신규 개발 지원 및 기존 교과서 K-클라우드 전환* 및 고도화 지원 (5개), 2개의 과학사·AI디지털교양서 개발 등(과기정통부)

* 외산 클라우드 → 국산 AI반도체(NPU) 기반 클라우드로 이전·고도화

예 시 AI 디지털교과서 효과



❖ 대시보드를 통한 학습진단 분석, 최적 학습경로 추천, 수업 설계 및 맞춤 처방, 학습이력 관리로 학습격차 완화 기여

※ 美 중학교에서의 인간-AI 튜터 혼합 학습 지원 결과 학습성취도가 낮은 학생이 학습 시간수준 향상의 혜택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남(Thomas 외 '23)

- 개발된 AI 디지털교과서의 점정심사 운영지원('24) 등을 거쳐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과 부문 초·중·고 우선 도입('25) 지원(교육부)

□ (문화·주거) AI콘텐츠 전국민 이용 지원, AI홈서비스 제공 등

- **(AI 콘텐츠)** AI·실감기술(VR·AR 등) 연계 콘텐츠 제작지원 및 AI 활용 독립 유공자 등 보훈인물 **AI 디지털 휴먼 콘텐츠 제작**(문체부·보훈부, 107억원)

- **(AI 큐레이터)** 박물관·미술관 등 전국 13곳 문화전시공간에 문화소의 계층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AI 큐레이팅봇 서비스*** 제공(문체부, 15억원)

* 큐레이션·로봇·챗봇(AI)·실감형미디어 등이 복합된 디지털비대면 문화향유 서비스

- **(AI 홈)** 공동주택 등 실제 주거환경에서 **생성형 AI 기반의** 체감 높은 **지능형 홈 서비스 실증**(1개소) 추진(과기정통부, 25억원)

2. 산업 분야 AI 융합 · 접목 촉진

□ (법률·미디어 등 민간 전문영역) 전문가 업무보조 및 국민 접근성 향상

- (법률) 법률 전문가의 업무를 보조하고 소송 등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 이용성을 향상하는 초거대AI법률서비스(5개) 개발(과기정통부 75억원)

예 시 법률 전문업무 보조 AI서비스 기대효과



- ❖ 법조인의 법률업무(소장초안 작성, 법안 요약, 규정·절차 안내 등) 효율·생산성 증대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 AI 활용으로 계약서 작성 시간은 평균 32% 단축, 품질은 평균 8% 개선된 것으로 분석(美 미네소타 리걸 스터디 리서치, '23.11)

- (의료) 보호자의 실시간 소아 건강상담·관리를 지원하고 부족한 의료진의 업무를 보조하는 초거대AI의료서비스* 개발(과기정통부, 80억원)

* 대민용(소아 건강상담·질병 위험 알림)+의료인용(증례 추천·처방 보조)

- (심리상담) 우울증·청소년 자살 등 사회문제 해소와 대국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초거대 AI심리케어서비스 개발(과기정통부, 60억원)

* 대국민서비스 : 체감형 상담 솔루션, 전문가 서비스: 상담인력 보조 서비스

예 시 AI 심리상담 챗봇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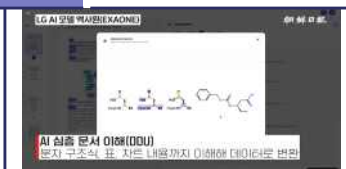
- ❖ 'AI'와의 대화를 통해 심리상태·정서를 파악하고, 맞춤형 심리케어 서비스 제공, 환자 정서 안정화 기여
- ※ (예) Youper(美) 앱 사용자 4500명 대상 실험. 앱 사용 2주 뒤부터 불안 증상이 24%, 우울증이 19% 감소('23.8)

- (미디어·문화) 미디어·문화 향유 기회 확산과 전문가 보조를 위한 생성형 AI 기반 창작보조서비스* 개발(과기정통부, 90억원)

* 연예인 모델의 광고 스크립트 컨셉 창작, 영상자료 기반 요약본(하이라이트) 생성 등

- (학술) 논문검토·학술교육 지원 등 일반 국민의 학술연구 효율성 증대를 위한 초거대 AI학술·클라우드 서비스 개발(과기정통부, 78억원)

예 시 학술·연구 전문 업무보조 AI 서비스



- ❖ 논문 요약과 개념 설명, 유사 연구 기반의 연구 설계 방안 제공 등 학술연구 보조 AI를 통해 연구 효율성 제고
- ※ 평균 40개월(1만회 실험) 소요되던 화합물 구조 설계·합성 연구에, AI(LG LG 엑사원 2.0) 활용 시, 5개월(수십회 실험) 내로 단축 가능

□ (바이오·제약·의료) 신약·항체개발 첨단화 및 지역 의료AI 확산 기여

- **(신약개발)**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비용 등 한계 극복을 위한 **AI플랫폼 고도화** 및 이를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과기정통부, 77억원)

* 폐암 신약,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신약, 혁신 면역 항암제 발굴 등 5개 과제 추진 중(~27)

예 시 AI활용 신약 개발기간 단축



- ❖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한 신약 발굴 기간 축소
 - ※ (평균 신약개발과정) 후보물질발굴(4~7년) → 전임상(1~3년) → 임상1~3상(5~6년) → 허가(1~2년)
 - 신약 후보물질 발굴시 AI를 활용하여 대규모 화합물 탐색 하거나, 단백질 결합 확인에 시간·비용 절감

- **(항체은행)**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 기반 항체-항원 결합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항체 설계를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과기정통부, 50억원)
- **(바이오 데이터 공유·활용)** 제약사가 보유한 데이터의 연합학습*을 지원하는 모델·플랫폼 구축으로 **AI신약개발** 촉진(과기정통부·복지부, 35억원)
 - * 기기·기관 등이 분산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도 협력해 AI모델을 학습하는 기법
- **(지역 의료AI)** 의료기관 76개*·지자체 1개 대상 의료 AI 확산을 위한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AI 솔루션 등 도입 지원(과기정통부, 183억원)
 - *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52개), 의료AI솔루션(14개), AI기반 디지털 전환(10개) 등 지원

□ (소비·유통물류) 소상공인 영업지원·노동감소 및 스마트 물류관리 촉진

- **(소상공인)** 키오스크 등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AI기술 6,000개*** 보급 및 소상공인 필요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중기부, 367억원)
 - * 키오스크 등 일반형 상점 기술 5,200개, 조리로봇 등 선도형 기술 800개 보급
- **(스마트물류)** AI 등 디지털 물류기술* 적용으로 이송적치 자동화, 실시간 재고 관리 등이 가능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인천항, 부산항) 건립(해수부, 117억원)
 - * 로보틱스, 빅데이터, IoT, 디지털트윈(가상현실을 재현한 시뮬레이션) 등 물류기술
- **(AI솔루션)** 소상공인 디지털 활용 촉진을 위한 **200개 상점 대상 AI 솔루션 현장적용** 과제(20개) 추진(과기정통부, 40억원)

□ (제조·공정) 공정효율 향상·비용절감 기여, AI發 新서비스 창출 기여

- **(KAMP*)** 중소 제조기업의 AI·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제공, 데이터 가공·구매 지원·컨설팅(25건) 등(중기부, 69억원)
 -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인공지능 제조 플랫폼)
 - ** 제조 특화 AI 데이터셋·가이드북(50종), 분석지원도구(13종), AI 개발환경(2종) 등
- **(AI 오픈랩)** AI솔루션 기반 제조업 현안 해결 및 AI개발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 AI오픈랩 5개소* 구축·운영(과기정통부, 100억원)
 - *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대구 등 5개 지역

예 시

AI 활용 제조업 현안(ESG) 해결 사례



- ❖ 온도·압력·습도 센서를 통해 생산 공정 중 탄소 데이터를 수집·학습, 실시간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 탄소 배출량 예측·저감 서비스로 에너지 효율화 기여
- ※ 佛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인도지역 공장은 IIoT, AI 예측 모니터링을 통해 4년간 CO₂ 배출량 61% 감소, 폐기물 발생량 64% 감소 (WEF, '23.12)

- **(해운물류)** 선박 대상 AI·ICT 기술 적용 및 실증을 통한 지능형 물류 플랫폼 구축 및 선박기자재 상용화·국산화 등 지원(과기정통부 70억원)
- **(철강)** AI 영상분석 기반 철 스크랩 분류 시스템 개발* 등 전기로 제강공정의 디지털·AI 전환으로 에너지·공정효율 개선(산업부, 26억원)
 - * AI 기반의 스크랩 판정·분류로 투입 원료 품질 고도화, 공정 효율성 개선
- **(로봇)** 로봇서비스 필요 거점(예 : 리조트·물류센터·공원 등)에 AI·5G 융합기반 로봇 대규모 도입·실증* 및 테스트 필드 구축 추진(산업부, 703억원)
 - * 국민체감형실증형(AI활용 로봇서비스 개발), 사회문제해결형(노동문제 등) 추진
- **(소부장)** AI기반 신소재 개발 플랫폼 구축으로 소재개발 단계별 표준화 및 소재개발·부품 적용성 검증 등 지원(산업부, 240억원)

□ (농·축·수산) 무인화·자동화·안전화로 전통적 재배환경의 진화 촉발

- **(농업 자동화)** 스마트농업 시범거점(3개소) 기반 쿡(연천)·복숭아(옥천)·밀(김제) 재배지원을 위한 **농업용 AI·디지털 로봇실증·보급**(농진청, 30억원)
* 정밀작업 자율주행 활용, 제초작업 등 중노동 회피, 약제살포 등 안전대비 활용
- **(지역 농업AI)** 농업 인프라가 우수한 호남권 중심, **지능형 농업 인프라** 데이터 기반 AI 솔루션('24~'25년 12건) 개발·실증(과기정통부, 94억원)
※ 농기계 원격자율작업, 노지정밀농업 자동화, 통합 관제네트워크 등 개발·실증
- **(병해충 대응)** 과수·채소·밭작물 등 대상 **AI 기반 병해충 진단**(~'24년 31작물, 344병해충) 및 **AI 처방진단 서비스** 구축(농진청, 19억원)
※ AI기반 병해사진 인식을 통한 병해충 예찰·분석 및 전주기 육묘 자동화 시스템 개발

예 시 AI 병해충 종합관리 서비스 효과



- ❖ 농작물 사진으로 병해충 진단과 방제법 제공(농진청, '24.6~)
※ 인식정확도는 평균 96.6%로 사람(95.3%)보다 정확
- 조기 방제를 통한 피해 최소화와 농산물 생산·공급 안정화, 농약사용량 비용 절감 효과로 농가 소득 제고 기여 예상
- ※ 과수화상병 진단 소요기간 당일(기존 3~4일)로 축소, 예측정보 활용으로 약제 살포시 16% 방제 효과 제고 가능

- **(축산)** 축사 냉난방·악취 관리를 위한 **AI 기반 축사 환경제어 시스템** 개발·구축 및 자동제어·모니터링 시스템·기술 개발(농진청, 54억원)
- **(수산업)** 동·서·남해 주요 거점에 AI를 접목한 테스트베드*(2개) 조성 및 연관산업 집적화를 통한 **스마트 양식 시스템** 구축(해수부, 153억원)
* 센서를 통해 수온·수질 등 사육데이터 측정 → AI를 통해 분석·제어 → 양식 활용
- **(원예)** 시설온실 주요 원예작물의 재배(생육환경 조절 등) 관련 **AI**를 활용하는 솔루션 연구개발로 **재배 무인화·자동화** 추진(농진청, 71억원)

예 시 온실 원예작물 재배 자동화 AI 솔루션



- ❖ 작물 생육 및 온실 환경(온도·습도·광량) 데이터 기반 재배 환경 최적화 및 작물별 성숙도에 따른 생산량 예측
- ❖ 농업인의 노동력 감소를 통한 작업효율성 및 농산물 생산·공급망 안정성 증대로 농가 소득 증가 기대
- ※ 토마토 생산량 100% 및 딸기 생산량 150~160% 증가(농진청)

3. 재난 대비 · 공공 행정의 AI 내재화

□ (재난·안전) 화재·홍수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의 위기대응 능력 향상

- **(산불·화재)** AI감시플랫폼 확대('23년 10개소^{전국} → '24년 30개소^{전국}), 화학물질 화재사고 대응 AI솔루션* 개발(산림청·과기정통부, 46억원)

* 소방재난 대처방안(물주수, 분무소화, 진압 후 가연증기 진압 등), 화재 등 피해 범위예측 및 조기 이격거리 확보 및 방호활동 결정 지원 등 대응방안 제시

예 시

산불화재 감지 솔루션



- ❖ 지능형 CCTV를 통한 산불화재 감지·확산 예측 솔루션
- ❖ 모니터링을 통해 산 속 이미지(불, 희미한 연기 등) 감지·경고, 24시간 산불 조기 발견·판독, 피해 최소화
- ※ (사례) 美 캘리포니아 산불국은 4개월 동안 발생한 화재 40%가 911 신고 전 AI 솔루션을 통해 탐지해 예방

- **(홍수·침수)** 수위관측소 확충 및 전국 223개 지점 AI홍수예보시스템 구축·운영(환경부, 818억원), 도심데이터 활용 침수 예방체계** 구축실증(과기정통부 60억원)

* 수위관측소 신설 : ('23년) 43개소 → ('24년) 258개소 / 플랫폼 운영 : '24.上~

** 하수관로 등 도심시설물 데이터 AI 분석·감시 → 침수예측 → 유관기관 상황전파

예 시

홍수예보 솔루션



- ❖ AI 기반 홍수예보 및 문자·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거주 주민과 통과 차량에 침수 위험 신속 전파
- ※ AI활용 전국 홍수특보 지점을 기존 75개에서 223개로 확대 운영('24.5~)

- **(도심안전)** 지역수요 기반* 도심AI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발·실증, 공공시설 위험감지·대응 등 AI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기정통부, 80억원)

* 산업안전(충북), 도로·생활안전(충남), 도시안전(대전), 시설안전(세종)

- **(관제)**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 지원시스템 구축 ISP 수립, 영상분석 모델 지자체 시범적용 및 기술 실증 공모사업 추진 (행안부, 32.5억원)

- **(감염병)** 신·변종 감염병 발생 시 조기 대응 및 피해경감 보조를 위한 감염병 유행 예측 AI 모델 및 대응 시나리오 개발(질병청, 4억원)

□ (공공 행정) 대국민 서비스의 질은 향상, 행정 업무의 양은 감소

- **(일자리·보험정보)** AI기반 일자리 매칭 알고리즘 고도화 및 시범과제 추진, 최적화 산재·고용보험 사업 추천 AI 솔루션 개발(고용부·과기정통부, 30억원)

* AI 인재추천 개선, 구인공고 AI 작성지원, AI 직업훈련추천 개선, AI 직업심리검사, 허위 구인 AI 검증, 취업확률모델 개발 등 6개 과제

예 시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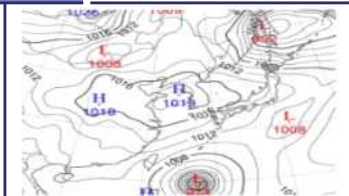


- ❖ 개인 선호도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와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추천을 통해 구직·구인 간 미스매칭 이슈 완화 및 취업률 제고
- ※ 알고리즘 고도화를 통해 AI 일자리 추천을 통한 입사지원 건수는 133만 건으로 66% 증가, 취업 건수는 17% 증가

- **(산림·기상)** 기상예보시스템 AI활용* 및 해충피해 발생 산림분석예측 AI솔루션 고도화로 대국민 행정 효율화(기상청·과기정통부, 49억원)

* (기상예측) 초단기 → 중기예보로 AI적용확대 (데이터) 기상·기후정보 AI 분야 활용 확대

예 시 AI 기반 기상예측기술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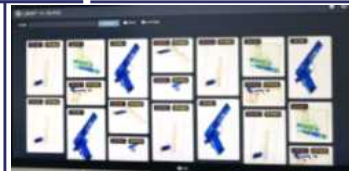


- ❖ AI로 기상예측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일상 속 기상변화 및 위험기상을 예측, 피해 최소화
- ※ Google Deepmind(美) 자체 개발 날씨 예측 모델 (그래프캐스트AI)을 통해 허리케인 대비 시간을 3일 단축 가능

- **(통관·통계)** AI 통관영상솔루션* 개발로 위험물품 반입·반출 감시 효율화, AI기반 국가통계분류업무 자동화 등(과기정통부·통계청·관세청, 11억원)

* 관세청 운영 중인 X-Ray 판독시스템과 연동 및 솔루션 현장적용(인천 특송물류센터)

예 시 AI통관영상 관리 솔루션 기대효과



- ❖ AI 기반 수입 신고서 상 화물 정보 확인 혹은 위험물품 판독, 영상 판독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 제고 및 관세 안전 확보
- ※ 육안으로 영상 판독 시 5개 모니터를 확인해야 하지만, AI 도입을 통해 1개 모니터로 영상 분석 결과까지 확인 가능

- **(특허)** AI기반(특허전용 거대 AI언어모델 등) 특허·상표·디자인 심사지원*, AI 기반 문자인식 기술을 활용한 특허심판방식심사** 자동화(특허청, 26억원)

* ('23) 거대 AI언어모델 개발 → ('24~'25) 실증연구 → ('26) ISP 수립 → ('27~'28)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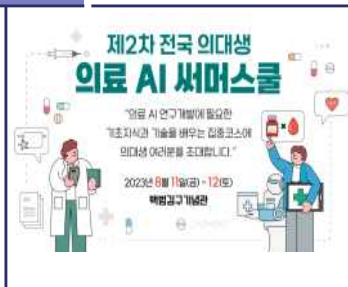
** (방식심사) 필수사항 기재 및 수수료 납부 여부 등 법령상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 판단

4. AI시대를 대비하는 국민역량, AI윤리 확보

□ (리터러시·인재) 국민 일상의 AI접근 향상, 현장형·실무형 인재 양성

- **(AI중심학교) AI 정보교육 중심학교** 신규 선정(500개교)·운영* (교육부, 181억원)
 - * 이동식 책상, 노트북, 태블릿, 드론 등 디지털 기기 활용이 자유롭고 다양한 AI·정보교육 관련 다양한 활동 구성이 가능한 디지털 교육공간 구축 등
- **(SW대학·의료AI) SW중심대학** 신규 17개교 지원(총 58개교)하여 AI·SW전문 인재 양성, 의과대학 내 **의료 AI정규과정** 개설 지속* 등(과기정통부, 940억원),
 - * ('22년, 3개) 가톨릭대, 고려대, 연세대, ('23년 2개) 경상국립대, 동아대, ('24년, 1개 추가)

예 시 의료AI 교육도입 기대효과



- ❖ 의대생 AI 교육*을 통한 향후 투입될 의료 현장에서의 AI 활용률 제고, 의료 AI시대 조기 실현 기여
 - * 총 743명 교육 수료(~'23) 및 434명('24) 교육 수료 예정
 - 진단 등 의료 업무(병명 진단 등) 효율화 및 정확도 향상으로 의료 만족도 제고 국민 건강 향상
 - ※ (고칼륨혈증 진단) 서울대 전문의 5명(0.62)보다 높은 정확도 AI(0.92)

- **(실무형·현장형 인재) 실무형 AI인재 5,846명** 양성, 기업재직자 2,500명 AI 맞춤형 교육 및 디지털전환전문가 200명 양성 등(과기정통부, 440억원),
 - * 전국 5개 권역(서울, 동남권, 동북권, 호남권, 충청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활용
- **(일상AI) AI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전국 3천개 이상 수요기관에 디지털배움터 강사 파견으로 실생활 AI 교육 5만명** 제공(과기정통부, 279억원)
 - ※ (예) (초등) 실과 '디지털 사회와 인공지능' 영역 및 AI기술을 융합한 콘텐츠 개발, (중등) 2022 개정 정보과 교육과정 및 주요 사회적 이슈와 연계한 콘텐츠 개발

예 시 일상 속 AI 활용 교육 개요



- ❖ 일상 속 AI 활용법(해외에서 AI 번역기 사용법, 챗GPT 사용법 등) 교육을 통한 대국민 AI 리터러시* 및 활용도** 제고 기여
 - * AI 교육 '24년 약 13만명 인원 수료 예상('23년 13만명 수료)
 - ** 높은 AI 인지도(응답자 99.3% 인지)에 비해 낮은 이용경험 (9대 분야 AI 서비스 평균 이용률 42.6%)(1,000명, '23.6)

□ (격차 해소) 지역·계층 등 소외 없는 맞춤형 AI교육 제공

- **(도서벽지)** SW·AI교육 인프라 부족지역 SW미래채움센터 운영 지속 및 도서벽지 등 초·중등 대상 찾아가는 SW·AI교육 제공(과기정통부, 204억원)
* 전국 13개 지역에서 1,170명(지역당 90명) SW·AI전문강사 양성·채용 및 총 39,000명(지역당 3,000명) 초·중등학생 SW·AI교육 추진목표
- **(소외지역·계층)** 교육 소외지역·소외계층 대상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 운영(시도별 1개)으로 맞춤형 AI정보교육 지원 등(교육부, 6.8억원)
- **(청소년)** 중·고교 대상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SW·AI 심화학습 동아리 ‘SW 동행 프로젝트’ 운영(과기정통부, 50억원)
※ 학교 밖 자원(멘토, 민간, 혁신기업 체험학습 등) 매칭, SW·AI 분야 진로 적응성 강화

예시

맞춤형 AI교육(SW동행프로젝트) 개요



- ❖ 디지털심화시대 주역이 될 미래세대의 AI·SW 등 역량을 강화하는데 학교 밖 자원을 연결하여 선순환 교육체계 마련
- ※ 청소년 4,000명, 청년 1,200명 총 5,200명 참여 목표('24년 신규)

□ (신뢰·안전) 민간자율 AI 신뢰·안전성 확보 지원과 생성형 AI궤 위험 대응

- **(민간자율 신뢰성)** 민간자율 AI윤리·신뢰성 확보를 위한 ‘AI 신뢰성 인증 활성화’, ‘AI 윤리·신뢰성 가이드라인’ 개발·보급(과기정통부, 40억원)
* 생성형 AI, 금융분야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안내서’ 개발
- **(생성형 AI 안전)** 딥페이크, 편향 차별 등 생성형 AI궤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AI 안전테스트 프레임워크(워터마크·레드팀 등) 개발(과기정통부, 15억원)
- **(AI윤리·안전 R&D)** AI학습에 활용된 데이터·알고리즘의 편향가능성 진단 및 환각현상 극복에 기여할 AI 기술개발 추진(과기정통부, 153억원)
- **(AI 프라이버시)** AI 기술·서비스 개발 등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구체화한 ‘6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개인정보위)
※ ① 비정형데이터 ② 공개된 정보 ③ 생체인식정보 ④ 합성데이터 ⑤ 이동형 영상기기 ⑥ 투명성 확보

VI. 2024년 AI일상으로 변화하는 국민의 삶

AI 일상화로 변화하는 국민의 삶

국민 일상 AI 행복 확산

건강·질병	사회·복지	문화·주거
의료 AI 솔루션 확산, 전 국민 건강 향상 12대 중증질환에 대한 AI 의료 SW(24개) 임상검증 (‘24) 인허가 획득 예정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보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24) 정보통신보조기기 5,300대 보급 예정 	다양한 AI 콘텐츠 전국민 대상 지원 생성형 AI 기반의 지능형 홈서비스 실증 

산업 전 분야 AI 융합

민간 전문 영역	제약·의료	제조·공정
‘마이닥터 24’, ‘마음건강’ 서비스 등 법률·의료·심리상담 미디어 문화·학술 등 5대 분야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확산 	신약 및 항체 개발 첨단화 AI 플랫폼 고도화로 신약 후보물질 발굴 ※ 신약개발기간 단축 기여 지역 의료 AI 확산 76개 기관 대상 AI 솔루션 도입 지원 	AI 솔루션 실증을 통한 제조업 현안 해결 지역산업 현안 해결 오픈랩 5개소 구축 (‘24)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제조분야 AI 정착 (‘24) 컨설팅 25건 

공공행정의 AI 내재화

재난·안전	공공 행정
화재, 홍수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신속한 위기 대응 능력 향상 - 산불감시 플랫폼 확대 (‘23) 10개 → (‘24) 30개 - 홍수 특보 지점 확대 (‘23) 75개 → (‘24) 223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은 향상하고, 행정업무의 양은 감소 - 개인 선호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 추천 - 통관 영상을 AI로 판독하고 분석해 효율적으로 관세안전 확보 - AI 기반 특허·상표·디자인 심사지원 

국민역량 제고 및 AI 윤리 확보

AI 리터러시·인재	접근성 향상	윤리·신뢰
디지털 배움터를 통한 실생활 AI 교육 및 체험 기회 제공 (‘24) 전국 5만명 대상 SW 중심대학 확대 (‘23) 51교 → (‘24) 58교 	소외지역 맞춤형 SW·AI 교육 지역간 AI 격차 해소 (‘24) SW 마라체움 센터(13개 지역) → 초·중등 39,000명 	투명한 윤리기준과 안전한 신뢰성으로 AI 서비스 확산 AI 안전테스트 프레임워크 개발 